

☞ 운문문학

◆ 1. 시는 무엇인가?

시는 보통 '서정' 갈래로 구분합니다. 서정 갈래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에 담아 표현하는 '1인칭의 발화'의 문학입니다. 이 서정 갈래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시'입니다. 이런 운문문학에서는 '화자'가 항상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화자'가 대상을 포착하고,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시를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시에서 화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대상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자가 소쩍새라는 대상을 보고, '슬피 우는 소쩍새'라고 표현했다면, 그 소쩍새는 슬퍼하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슬퍼서 우는 것인지는 모르죠.

쉬운 예시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참 어려운 아이인가 보다. 불쌍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재밌게 몸을 쓰며 놀기 위해서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그 아이는 어떤가요? 여전히 불쌍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시에 대입하면, 우리가 화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아이가 대상(세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화자에 의해 '불쌍한 존재'로 규정됩니다. 즉, 자아가 인식한 대로 세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자아화, 서정(시)입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입니다. 모든 기준이 화자가 돼야 해요.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에 또 주목해야죠. 그럼 끝나냐? 아닙니다. 화자는 항상 어떤 정서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대부분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촉발돼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시적 상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 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③ 전반적인 시적 상황

이 3가지면 운문문학은 끝입니다.

◆ 2. 시에서의 긍정과 부정

대부분 학생들은 시어의 긍정과 부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신 베이스로 쌓아온 지식과 어감을 통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Chapter 0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문학을 객관적으로 읽어야 해요. 그럼 긍정과 부정은 어떻게 판단하냐!

바로, '**화자**'입니다. 화자를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셔야 해요. 화자가 특정 대상을 지향한다면 긍정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입니다. 이번에도 예시로 보는 게 빠르겠죠? 실제 지문이라고 생각해보고 읽어봅시다.

*읽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다 읽으셨다면, 아래의 표도 한번 채워보세요.

대상	
정서 및 태도	
시적 상황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시적 상황은 이별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 이별을 수용하고 있어요.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수용'입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역시나 이별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자는 이별을 '축복'이라고 하는 만큼, 이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1.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22.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는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기나긴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편 37p)

-2017.09 [19~20]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2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24.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것이었는데, 이 선지는 '적절한'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이 소설의 '숨겨진 사건'이에요. 지문을 같이 봅시다.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아.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낯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불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서 이런 꼴을 보시면 똘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문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려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텅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팔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옴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던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아'라고 한탄에 가까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라고 하죠. 즉, '그'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거나 동냥을 하는 등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이것 파악하지 못하면 위의 선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아마 도둑질이나 동냥질이었죠?)을 했다는 사건은 제시된 장면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어머니'가 구호소 식당으로 가는 사건에 영향을 주고, '그'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 숨어서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숨겨진 사건'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낼 때 비로소 소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나누어서,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며 읽어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 3.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3-1. 현대소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현대소설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개’, ‘광장’, ‘사막을 건너는 법’, ‘무사와 약사’와 같은 지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소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인물의 심리(태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봅시다. 영화로 가정해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마블처럼 그래픽 화려하고 등장인물들끼리 싸우고 전투신 보여주고 하는 영화가 재밌나요, 아니면 잔잔하게 심리전 하는 영화가 재밌나요? 대부분 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블 영화 같은 SF 영화 못지않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네, 관객이 인물의 심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영화를 전개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내적 갈등을 주로 다루는 소설이 재미있으려면, 독자가 소설에 몰입하고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글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인물의 심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게 묘사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섭다’라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섭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온몸에 오한이 들고 마치 일곱 살 적 귀신조차 없는 귀신의 집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길고 장황하게 묘사하는 게 소설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더욱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나. 인물의 심리를 문학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우리가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장이 장황하니까 핵심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만한 현대소설, 표현이 장황한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의 심리’에 주목하고, 다양한 묘사를 짧게 압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온몸에 오한이 들고 마치 일곱 살 적 귀신조차 없는 귀신의 집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두려움’이라는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듯이요. 자세한 건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봅시다.

*인물의 심리에 주목하라는 것이지 현대소설에서는 외적 갈등이 안 드러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난해하다는 느낌이 들어 체감 난이도가 높은 경우, 대부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독해 태도 자체는 앞에서 설명한 4가지입니다.

3-2.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달리 인물의 심리보다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작품의 대부분은 인물 관계를 복잡하게 주는 등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설의 주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인물 간 호칭 잡기’입니다. 고전소설은 외적 갈등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호칭이 자주 바뀌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주 바뀌는 인물의 호칭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생각 없이 같은 인물만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물의 호칭을 파악하면서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파악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해요!

*역시나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애정 전기소설은 인물의 심리를 섬세히 다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도 인물 관계 잡기이고, 대부분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출제된 지문이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면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고전소설을 읽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3-3. 고전소설의 특징

① 애정 전기 소설

1.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히 묘사함
2. 고독하고 쓸쓸한 주인공
3. 문제 해결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임

② 몽유록계 소설

1.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
2. '입몽 - 꿈속 대화/토론 - 각몽'

③ 영웅 소설

1.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은 작품이 많음
2.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인 전개
3.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남 - 비정상적인 출생 - 비범한 능력을 보임 - 어릴 때 버림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함(1차적 위기) - 조력자를 통해 극복 - 성장 후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함(2차적 위기, 주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위기) - 위기를 극복함

④ 가문 소설

1. 계모 - 자식 갈등
2. 처 - 처(첩) 갈등
3. 혼사 장애(결연 방해)

⑤ 판소리계 소설

1. 구어체, 운율이 있는 문체(울문체) 사용
2. 해학적, 풍자적

*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건 제시된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가)는 ‘여자’, (나)는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뭐.. 〈보기〉랑 관련이 있죠? 일단, 둘 다 성찰적 태도와 대상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공감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 ‘여자’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 화자가 병원에 있는 여자를 보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화자 또한 원인 모를 아픔으로 인해 병원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화자의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네요. 음... 같이 뭔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비슷한 처지네요.

* 여기서 ‘나도 모를 아픔’이 조금 애매합니다. ① 화자 스스로가 원인조차 모르는 아픔으로 병원에 왔다는 의미와 ② 화자 또한 여자와 같이 알지 못할 (원인 모를) 병으로 병원에 왔다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해석하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전 ②번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보기〉를 통해 화자가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연에서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2연에서는 그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1연에서는 실컷 대상에 주목하다가 2연에서는 갑자기 ‘몸 주인인 나조차도 모를 아픔이 있는데 의사도 몰라~’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작품을 최대한 머리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태도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그리고 화자는 자신과 여자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여자도 아프니까 병원에 있을 거예요. 화자도 원인 모를 아픔을 겪고 있으니 같은 처지인 ‘여자’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건, ‘여자’의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기〉의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여자가 누운 자리에 눕습니다.
 - 윤동주, 「병원」 -

중간에 중의적인 구절이 있지만 화자와 여자가 똑같이 병원에 있는 처지라는 점, 그리고 〈보기〉에 따라 화자가 여자의 처지에 공감하고 여자와 동일시한다는 점만 잘 잡고 읽으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

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아주 쉬운 작품입니다. 화자는 이동하는 길에서 총 3번 나무들을 포착합니다. 각 연마다 그 장면이 제시되는데 그때마다 나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죠. <보기>에서는 그 정서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는 갑자기 앞에서 본 나무들이,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여기서 '묵중한, 침울한, 고독한' 나무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사실 1, 2, 3연에서 표출된 화자의 정서와 연결됩니다. 1연에서 수도승처럼 '묵중하게' 선 나무가 '묵중한'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2연에서 '가난한 마을 어귀'에 '어설픈 과객'처럼 떼 지어있는 나무들과 '침울한' 나무의 모습이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수병처럼 외롭게 선 나무의 모습이, '고독한' 모습과 연결됩니다. 화자가 나무를 보면서 느낀 반응이 마지막 연에서 모두 정리되고 있어요. '화자가 공감한 정서'가 내면화 되어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박목월, 「나무」 -

네, 1~3연에서 포착한 나무들과의 동질성을 4연에서 드러낸다는 점만 잘 파악했다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내 안에 뿌리를 폈다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죠?

2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사물의 역동성은 어디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에서는 나무가 그냥 서있는 장면만 화자가 포착합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일상의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집기가 힘듭니다. (가)는 억지로 뭐 병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화자는 병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지역을 이동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상의 공간이라고 볼만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 '사물'이라고 할만한 건 아마 대상이 되는 '여자'일텐데... 이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냥 건강이 회복되길 '바랄 뿐'이죠. 또 여자의 속성을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착된 모습을 언급할 뿐이죠.

그리고 여자는 사람인데, 사물이라고 보는 것도 좀 그렇네요. 애초에 '사물의 속성을 분석'한다는 것부터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에 주목하지 않으니까요.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일까', '~하는 ~일까'와 같이 계속 추측 표현에 변주를 주고 있습니다.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동일시’와 관련된 ‘기범’의 심리에 주목해야겠어요. ‘일규’는 동일시의 대상이고, ‘기범’은 동일시하려는 주체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기범’이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품을 읽을 때 ‘기범’을 메인으로 삼고 들어갑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가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기범’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기 위해 ‘임 씨’를 만나러 가네요. 그 과정에서 일규의 장례식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현재는 기범이 죽고, ‘나’가 ‘임 씨’를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뒤의 장면은 회상 장면이라는 점을 미리 생각해해야 해요.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 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일규’의 죽음에 대한 ‘기범’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범이 일규를 동일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기는 일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일규가 죽으면서 ‘세상 살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규의 부재로 인한 상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합니다. 일규는 기범을 ‘발길로 걷어 찼지만’ 자신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해요. 기범은 일규와의 관계를, 서로 사랑했다고 느낍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보기〉를 떠올린다면, 기범의 합리화로 보아야 합니다. 대상의 부재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때 자신이 일규로부터 외면받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걸 일규가 자신을 ‘발길로 걷어 찼다’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발길로 걷어 찬다는 말은, 거부 의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규는 기범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기범은, 자신을 그렇게 발길로 걷어 찼던 ‘일규’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합리화네요.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루 들어 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뭐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렵듯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린 ‘나’가 ‘기범’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임 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범에 대해 ‘나’와 ‘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나’와 ‘임 씨(저)’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고 보아야겠네요. 그렇게 ‘나’가 ‘기범’에 대한 정보를 ‘임 씨’로부터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범을 점점 이해하고 있어요. 역시나 주된 내용은 기범에 대한 서술입니다. 기범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파악합시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오일규’라고 언급까지 해주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범의 이상한 생각, 그리고 기범이 갑자기 산속으로 사라진 이유는 ‘일규’의 죽음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은 오일규를 가리키고, 그가 세상을 버렸단 건 죽었다는 말일 거예요. 종락 이전에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들을 연결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범이 지껄이던 요설은 일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일규가 죽고 세상 살맛이 사라지고, 일규와 기범은 서로 사랑했다는 그 말 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일시하려던 일규가 죽으니, 세상 살맛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범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해줍니다.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일시의 대상인 일규가 죽었기 때문이죠!

요. 또 본문에서 회상이라고 할만한 것은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가 과거의 일을 딱히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본다는 구절이 나오거나 아내와의 일을 생각하긴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거나 그걸 장면으로 구성하진 않으니까요.

르 :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드러내는 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걸 드러내는 것은 '회택의 거리'를 바라보는 '나'의 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가 회택의 거리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네, 옥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미쓰꼬시 옥상에서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그 공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정오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꽤 어려운 선지예요. '나'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잘 파악해야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네, 건물의 옥상이니까 '회택의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위치예요.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거리를 내려다 보며 자신의 심리를 제시해요. 그런데 그 서술 대목을 보면 약간 멀리서 불구경하듯 묘사를 합니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이런 대목을 보면 회택의 거리와 확실히 구분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멀리서 회택의 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괴리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등장한 '나'의 심리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나는 회택의 거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즉, 지금 나는 회택의 거리 밖에 있지만, 그곳에 섞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옥상에 있는 '나'와는 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도 '머지 않아' 회택의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섞이지 않은, 다른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 네, 회택의 거리를 보고 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부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로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 '체념'의 공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11.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이때 두 —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 <보 기> —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 오를 때라는 것이다.

- ‘정오’의 사이렌은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나’의 태도에 변화를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오를 각성의 시간이라고 이해했죠? 또,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재생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쥐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 네, ㉠을 기준으로 각성을 하니까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선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작품을 꼼꼼히 다시 읽어주세요.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이것도 작품 해설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희망과 야심을 되살리니, 무기력한 삶에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겠군.

→ ㉠ 이전에는 ‘아내에게 가야할까 말아야 할까, 그럼 어디로 가야할까’라며 물음의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어조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났습니다. 반면 ㉠ 이후에는 ‘~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단정적 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날자꾸나’라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즉, 확신과 의지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각성과 재생의 시간’이라는 ‘정오’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이 있죠.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진 않습니다. 그냥 ‘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과 야심이 살아나는 등 ‘나’의 의식 변화가 주된 포인트이니깐요.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 네, ‘정오’가 ‘각성과 재생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신경써야 합니다. 그냥 ‘12시’라는 물리적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나’의 인식 변화, 각성이 중요했습니다.